

# 박지환 “세계대회 결승무대는 밟아봐야죠”

(스포츠클라이밍)

### 아시아 챔피언십·세계선수권대회 등 국가대표 출전 “개인적으로 마지막 세계 대회로 생각 최선 다할터”

종류를 거슬러 오로지 맨몸으로 수직의 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대단히 도전적인 스포츠다. 최소한의 인전장지(로프)만을 갖추고 인공 손잡이(홀드)를 다짐돌 삼아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스포츠다.

국내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가진 '여제' 김지환의 활약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 선수는 아직까지 세계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다 보니 남자 스포츠클라이밍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지환(27·아이더)이 눈에 띈다. 그는 이 선수권 대회 우승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무대를 누비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아시아 챔피언십과 월드컵 시리즈를 비롯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한다.

사실 박지환에게 국가대표가 처음은 아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숱한 세계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국내 스포츠클라이밍

에서는 최정상의 기량을 가진 선수다. 아시아 청소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13년 아시아 챔피언십에서는 3위에 오른 등 아시아권에서는 꽤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대회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진다.

박지환은 “여자부는 김지환이라는 대단히 독보적인 선수가 있지만 남자부는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기량 차이가 있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지환은 초등학생 시절 클라이밍을 먼저 접한 친구를 따라 갔다가 입문했다. 현재는 군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의 잔근육들이 선명하다.

하지만 어린시절 몸이 약해 스스로 강해지고 싶어 택한 것이 클라이밍이다.

그는 “어렸을 때는 잔병치레도 많고 몸이 약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인공 암벽장에 갔다가 내가 먼저 시작해보겠다고 부모님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허락해주어서 지금에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클라이밍의 세계에 빠져든 박지환은 청소년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함께 클라이밍을 시작한 친구들은 중간에

모두 그만뒀지만 자신은 15년 넘게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박지환 스스로 이번 국가대표가 자신의 선수인생에 있어 마지막 태극마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취미활동으로 하기에는 부상 위험성이 적은 스포츠지만 선수로서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산다.

모든 힘을 쥐어짜고 극한에 도전하는 특성상 손가락과 무릎 등 몸에 상한 곳이 없다.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비싼 대회 스케줄과 훈련 때문에 여의치 않다.

그렇다 보니 선수생활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 짧은 편이다. 20대 후반이면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이다.

박지환은 “스포츠클라이밍은 가장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시기가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접어드는 저로서는 선수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며 “내년 군인예도 앞두고 있어 더욱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월드컵 대회에 나가 결승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그로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박지환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마지막 세계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월드컵에서 결승 무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지환(27·아이더)

/김민근 기자

### 전라북도검도회 초대 회장 임영석씨 추대

전라북도검도회가 지난 18일 전라북도검도회와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검도연합회가 통합된 이후 최초로 통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각 시·군별 대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회장 추대와 경과보고, 규정 승인, 임원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된 임영석(사천) 초대 회장은 “향 단체가 하나가 된 만큼 서로 협력해 전북검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옛 명성에 맞는 전북검도회가 되도록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추대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 김경호 전북교육청 국장 학교체육위 위원장 선정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 제4회 학교체육위원회가 20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입 위원장 선출과 새롭게 구성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회의 기능 설명,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계획, 선수트레이너 파견계획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체육위원회를 4년의 임기동안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김경호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도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서, 도체육회의 학교체육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 할매들의 멋진 랩 경연

### JTBC 예능 '힙합의 민족' 8명 최종 우승 경쟁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평균 나이 65세 할매들이 이렇게 멋지게 랩을 해내려라고는 랩하는 할매니를 코믹하게만 그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꽤나 진지한 무대가 계속되고 있다. 인생송 아이돌 가수를 주제로 '힙합'을 알지 못하는 할매들이 그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가사를 내뱉는 감동의 순간이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힙합의 민족'은 배우 김영욱(79) 이용녀(80) 양희경(82) 이경진(80) 문희경(81)과 방송인 최병주(71), 에어로빅 강사 엄정인, 경기명창 김영임(80) 등 8명의 할매가 모여 1캐럿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생각지도 못한 진지한 도전과 나이가 무색한 이들의 열정에 초반부터 호평이 쏟아졌다. 어느새 1차, 2차, 3차 경연을 마치고 마지막 4차 경연까지 끝냈다.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욱 담당CP는 “어차피 우승은 문화경 아니라고 하더라도 웃었다. 1차 경연 우승을 차지하며 초반부터 기세를 뽐냈던 것이다. 4차 경연을 앞두고 2주 이상 무대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경연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1·2·3차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무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길에서 힙합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힙합을 들어본 적도 없던 할매들과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황당하고 무모한 도전’이었다. 점점 높아가는 랩 실력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할매니와 젊은 프로듀서가 소통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도 프로그램이 보여준 또 다른 성과다.

오는 27일 마지막 방송까지 마친 뒤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할매니(할머니와 래퍼 에미넴을 조합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힙합’으로 출연 대상을 확장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40~60대에까지 힙합이 낯선 문화가 아니라는 걸 알리는



JTBC 예능 프로그램 '힙합의 민족'은 8명의 할매니가 모여 1캐럿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데 기여했다고 봐요. 힙합을 예능에 접목할 생각도 없었는데 경연까지 잘 마친 후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기자



### 유소년전통종목강습회 10월 중 무주일원 개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지난 3일 전통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스포츠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

도 체육회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스포츠를 유소년을 대상으로 10월 중 무주일원에서 '유소년전통종목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도내 다양한 지역의 30개소 800여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태권, 씨름, 전통체조, 투호 등 다양한 민족종목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체육회 지원육성처 류창욱 사무처장은 “잊혀 가는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의 전통스포츠를 널리 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 및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